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0년 2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대표 직책 표기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위원장'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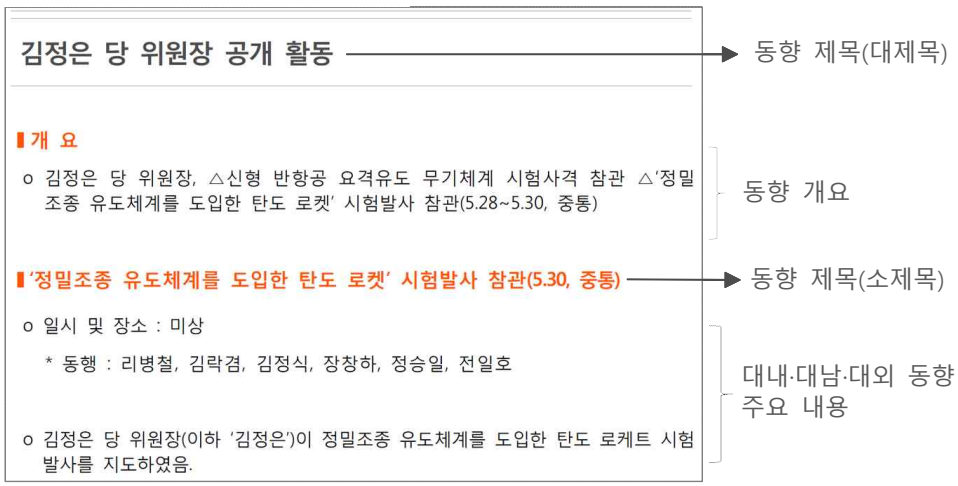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o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o 동일한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최초 1회만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개황 1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5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8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9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10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2
신종 코로나19 차단 사업 강조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사감독법' 수정·보충 15
'정면돌파사상' 강조 16
'건군절' 72주년 사설 17
전국대학, 2019 교육총화회의 진행 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주요 강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20
김정은 위원장, 故 최창수 영전에 화환 전달 21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기구 등 전달 22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기간 연장 23
'백두산정신' 강조 및 정신무장 독려 24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진척 25
'백두의 혁명전통은 승승장구의 원동력' 주장 26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건설 결속 27
'코로나19' 미발생 주장 및 위생 방역사업 주력 촉구 28
'자력갱생, 절대불변' 강조 29
'전략자산으로써의 과학기술' 강조 30
당 간부들의 헌신적 복무정신 강조 32
'인민보건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33
'코로나19' 의학적 감시대상자 생활 보장 및 외국인 격리 .. 35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 38
경제강국 건설 위한 증산절약운동의 전군중적 전개 강조 .. 39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 41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 .. 43
'코로나19' 관련 방학 연장 및 기숙사생 생활조건 보장 44

Contents

대남동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 ····· 45
국방부 장관 발언 등 우리 군 비난 ····· 46
'한미 합동군사연습 확대 방안 추진' 비난 ····· 47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 ····· 48
미래통합당 출범 비난 ····· 49

대외동향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위문 서한 발송 ····· 50
WHO,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 51
WHO,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 ···· 52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현황 보도 ····· 53
북-러 친선 조약 20주년 계기, 친선 강조 ····· 54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군사활동 비난 ····· 55
일본 '무력증강' 비난 ····· 56

주요인물 동정 ····· 57

월간 보도일지 ····· 61

이달의 약사 ····· 73

개황

대내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o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및 '감사' 전달(2.29, 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o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2.29, 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2.5, 중앙통신·중앙방송)**

o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장을 현지 요해

◆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2.3, 중앙통신·중앙방송)**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순천인비료건설장 △증산광산 △영유광산을 현지 요해

◆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탄소하나화학공업 건설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 요해(2.4, 중앙통신)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2.11, 중앙통신)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장산광산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풍년광산을 현지에서 요해(2.16, 중앙통신)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2.1, 중앙통신)**

◆ **신종 코로나19 차단 사업 강조(2.1,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사감독법' 수정·보충(2.6, 중앙통신)**

◆ **'정면돌파사상' 강조(2.7, 노동신문 논설)**

o '정면돌파사상'은 '백두의 공격정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투쟁방식' 강조

◆ **'건군절' 72주년 사설(2.8, 노동신문)**

o '건군절' 72주년 사설, '정면돌파전에서 혁명 강군의 위력을 높이 떨칠 것' 주문

◆ **전국대학, 2019 교육총화회의 진행(2.10, 노동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주요 강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2.10, 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故 최창수 영전에 화환 전달(2.11, 중앙통신 · 2.12, 노동신문)**

o 김정은 위원장, 배우 故 최창수(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 영전에 화환 전달

◆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기구 등 전달(2.12, 중앙방송·노동신문)**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와 기구 등 전달

◆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기간 연장(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백두산정신' 강조 및 정신무장 독려(2.13, 노동신문)**

◆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진척(2.15, 중앙통신)**

◆ **'백두의 혁명전통은 승승장구의 원동력' 주장(2.18, 노동신문 논설)**

o '백두의 혁명전통은 반사회주의 광풍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 주장

◆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건설 결속(2.18, 중앙통신)**

◆ **'코로나19' 미발생 주장 및 위생 방역사업 주력 촉구(2.20, 노동신문)**

◆ **'자력갱생, 절대불변' 강조(2.21, 노동신문 논설)**

o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전진방향·발전방식' 강조

◆ **'전략자산으로써의 과학기술' 강조(2.21, 노동신문)**

o 과학기술 강조,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주장

◆ **당 간부들의 헌신적 복무정신 강조(2.23, 노동신문 논설)**

◆ **'인민보건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2.23, 노동신문)**

o '인민보건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전염병 침습통로 철저 봉쇄,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소멸'

◆ **'코로나19' 의학적 감시대상자 생활 보장 및 외국인 격리(2.24, 중앙방송)**

o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감시대상자 3,000여명 생활 보장 및 외국인 380여명 격리

◆ **'인재 발굴·인재육성사업 중대성' 강조(2.25, 노동신문 사설)**

◆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2.25, 노동신문 논설)**

o '사상공세' 관련 김정은 위원장 저작 발표 6주년 계기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

◆ **경제강국 건설 위한 증산절약운동의 전군중적 전개 강조(2.26, 노동신문)**

◆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2.26, 노동신문)**

o '산림복구전투' 관련 김정은 저작 발표 5주년 계기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

◆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2.26, 중앙통신)**

o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수출입품 검사검역소,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

◆ **'코로나19' 관련 방학 연장 및 기숙사생 생활조건 보장(2.27, 중앙방송)**

대남동향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2.1~2.7, 중앙통신)**

o 방송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시마다 보도

◆ **국방부 장관 발언 등 우리 군 비난(2.3, 중앙통신)**

o 국방부 장관의 미 육군성 장관 및 태평양 육군사령관 접견시 발언 비난

◆ **'한미 합동군사연습 확대 방안 추진' 비난(2.6, 중앙통신)**

◆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2.26, 우리민족끼리)**

o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

◆ **미래통합당 출범 비난(2.27, 중앙통신)**

대외동향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위문 서한 발송(2.1, 중앙통신)**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분투' 위문 서한 발송 및 당 중앙위원회의 '지원금' 전달

◆ **WHO,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2.1, 중앙방송·노동신문)**

o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 **WHO,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2.4, 중앙방송·노동신문)**

o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현황 보도(2.5, 중앙통신·노동신문)**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 보도

◆ **북-러 친선 조약 20주년 계기, 친선 강조(2.9, 중앙통신·노동신문)**

o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 20주년 계기, 북러 친선 강조

◆ **최근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군사활동 비난(2.19, 중앙통신 논평)**

◆ **일본 '무력증강' 비난(2.26, 중앙통신 논평)**

o 일본의 '북 탄도미사일 발사 방해전파 장비 도입 착수와 고속 활공탄 개발 추진' 비난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일자 및 장소: 일자 미상, 금수산태양궁전

- 동행: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o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생일 78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의 꽃바구니가 진정되였으며, 당 중앙위원회·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하였음.

▌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및 '감사' 전달(2.29, 중방·중통·노동)

o 일자 및 장소: 2.28, 장소 미상

- 수행: 미언급

o 김정은 위원장은 2월 28일 군 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였음.

o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하였음. 현지에서 군 지휘성원들과 훈련에 참가한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음.

o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과 화력타격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훈련지도가 전선·동부지구 방어부대,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에게 이뤄졌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부대들의 전투력에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었음.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2.29, 중방·중통·노동)

o 일자 및 장소: 일자 미상, 장소 미상

- 수행: 미언급

o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임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집행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와 기타 단위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음.

o 회의에서는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당면한 정치·군사·경제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조치들을 실시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 박태덕 당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하였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부정부패현상을 발로시킨 당 간부 양성기지의 당 위원회를 해산하고 해당한 처벌을 적용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음.

- 최근 당 중앙위원회 일부 간부들 속에서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식 행동들이 발로되고 1당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하였음.
-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의 사상과 령도 풍모, 사업방법을 제 1선에서 따라 배우고 구현해야 할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당 간부 양성기관의 일군들 속에서 발로된 비당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 비판되고 그 엄중성과 후과가 신랄히 분석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당 중앙의 분석에 대하여 언급하고, 모든 당 일군·조직들이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회의에서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 규정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한 련관 기관들은 전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취해진 방역적 대책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방역 력량을 강화하고 방역 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복종하고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 장악보고와 법적 감시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회의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방역사업을 짜고들어 올해의 투쟁 목표를 수행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각급 당 조직들이 당 중앙의 사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방역조치들은 인민 보위의 국가적 사업이며 당 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면서 당 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회의에서는 당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였음.

- 평양시 당 위원장으로 김영환 동지가, 량강도 당 위원장으로 리태일 동지가, 개성시 당 위원장으로 장영록 동지가 임명되였음.

o 이번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당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 활동과 국가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개 요

o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장을 현지 요해(2.5,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기본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를 과학화하며 설비제작을 맡은 단위들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게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건설을 완공하기 위하여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되였음.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개 요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순천인비료건설장 △증산광산 △영유광산을 현지에서 요해(2.3,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2.3, 중앙통신·중앙방송)

o 당부위원장인 박봉주가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과 증산 광산, 영유광산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고농도린안비료생산공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데 대하여서와 보조생산공정과 교양 및 생활구역의 건설공사를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생태환경보호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련관단위들에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증산광산에서 륜전기재들을 만가동하여 광석운반을 제때에 따라세울 데 대하여서와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선광실수률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강조하였다.

o 이에 앞서 영유광산을 현지 료해하였음.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탄소하나화학공업 건설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 요해(2.4,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내각총리인 김재룡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와 타빈날개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강조하였음.

o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일정대로 공사를 내밀고 있는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으며 일군들이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건설물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일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새기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연구도입하며 련관 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음.

o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 료해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2.11,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내각총리 김재룡이 중앙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비상방역지휘부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중앙과 도, 시, 군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o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각 분과들의 책임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국경통과지점들에서의 검사검역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방역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장악지도를 짜고들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비상방역지휘부의 방역사업을 현지에서 상세히 료해한 김재룡은 모든 일군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또한 격리 및 치료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약품보장과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염병을 철저히 막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강구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장산광산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풍년광산을 현지에서 요해(2.16,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내각총리인 김재룡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김재룡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열에네르기의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장산광산에서 일군들이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이어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을 현지 료해하였음.

o 이에 앞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에네르기절약형 생산 공정을 꾸리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풍년광산의 생산정형을 료해하면서 중요설비, 자재보장문제 등을 토의하였음.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주요 내용(2.1, 중앙통신)

o 내각총리인 김재룡을 비롯한 내각성원들이 참가하였음.

o 내각직속기관 책임일군들, 성의 생산담당 부상들, 일부 관리국 국장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중요공장, 기업소 지배인들, 내각사무국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음.

o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과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도화상회의실에서 참가하였음.

o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o 김재룡 내각총리가 보고를 하였음.

o 그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은 조선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이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이라고 언급하였음.

o 모든 경제지도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예로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여 승리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음.

o 또한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나가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언급되였음.

o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되였음.

o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음.

신종 코로나19 차단 사업 강조

▌주요 내용(2.1,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o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음.

o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현재 국내에서 9692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에 의한 폐염환자로 확진되고 213명이 사망하였다고 함.

o 지금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은 아시아나라들 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o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o 우리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전개하여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보위하여야 함.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음.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염병과 질병을 제때에 막아야 합니다.》

o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우선 중대사임.

o 지난 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전염성질병들이 발생 전파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경제발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음.

o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세워 국내에로의 전염병의 침습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사회적 안정을 적극 담보하여 왔음.

o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으로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o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여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o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님.

o 그것은 혁명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임.

o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함.

o 중앙과 도, 시, 군비상방역지휘부에 망라된 당 및 인민정권기관,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과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o 종합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검열분과, 대외분과, 약무분과, 치료분과 등 해당 분과들이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력량을 보강하고 지도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o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해당 성, 중앙기관들과 도비상방역지휘부들의 사업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엄격히 총화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함.
- o 신형코로나비루스의 감염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임.
- o 해당 기관들에서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하여야 함.
- o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하며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외국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야 함.
- o 모든 단위에서 국경연선지역에 대한 출장, 려행을 극력 제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도록 하며 국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될 때까지 국제렬차, 국제항로 운영과 관광봉사를 근절하며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감시 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함.
- o 국경주변에 입국자들을 격리시키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보호복, 보호안경,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과 전력, 식량, 부식물, 먹는 물, 생활용품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함.
- o 해당 단위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검사시약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함.
- o 신문과 텔레비죤,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과 보건기관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감염증의 증상과 진단, 예방치료와 관련한 위생선전을 집중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함.
- o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동원된 검역일군, 의료일군들은 주민들속에서 열이 나거나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즉시에 격리시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함.
- o 각급 당조직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사감독법' 수정·보충

▌주요 내용(2.6, 중앙통신)

o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사감독법을 수정 보충하였음.

o 수정 보충된 해사감독법은 12개 장에 14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해사감독 체계의 수립을 비롯하여 해사감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정면돌파사상’ 강조

▌개 요

o ‘정면돌파사상’은 ‘백두의 공격정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투쟁방식’ 강조(2.7, 노동신문 논설)

o 제목: <우리 당의 정면돌파 사상은 백두산공격정신의 빛나는 구현>

▌주요 내용

o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단계마다 과학적인 투쟁 로선과 과업, 방도를 제시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상승시켜나가는 향도자임.

o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제시하였음.

o 조성된 난국을 전변시켜 나가는 전진 방식을 정면돌파전으로 천명한 당의 사상·로선은 김일성 수령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한 백두산공격정신의 구현임.

o 누가 누구를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의 대결전에서 피동적인 방어는 곧 자멸의 길임. 김일성 수령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였음.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뚫고 나가였음.

o 지금 미국은 대화 타령을 하면서도 공화국을 질식·압살하기 위한 도발적 정치군사·경제적 흉계를 로골화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행태 앞에 정면으로 맞받아나갈 단호한 립장을 세계에 천명하였음.
- 오직 정면돌파전으로 난관을 뚫고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고령도자의 의지임.

o 돌이켜보면 항일무장투쟁은 매 시각 육체적·정신적 극한점을 이겨내야 하는 시련의 련속이였음.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쓰러지면 조선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였음.

o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장구한 투쟁을 각오해야 하는 길임.

-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공격정신으로 돌진하여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임.

‘건군절’ 72주년 사설

▌개 요

o ‘건군절’ 72주년 사설, ‘정면돌파전에서 혁명 강군의 위력을 높이 떨칠 것’ 주문 (2.8, 노동신문)

o 제목: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이다>

▌주요 내용

o 김일성 수령이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것은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음. 김일성 수령은 해방 후 정규 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내세우고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음.

o 김정은 장군은 군력 강화를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웠음. 60년 전 선군혁명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긴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군부대들과 국방공업 부문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갔음.

o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높이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군사기술강군으로 준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고 실전형의 군대로 키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 건설사에 불멸할 업적임.

o 그 어떤 천지지변 속에서도 최고령도자가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려는 신념,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여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확고히 담보하려는 결사의 의지가 조국방선의 초소들마다 차 넘치고 있음.

o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 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사상과 령도에 있음.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혁명강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함.

전국대학, 2019 교육총화회의 진행

▌주요 내용(2.10, 노동신문)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교육기관사이에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새로운 교수내용과 방법을 창조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실속 있게 조직하여 나라의 전반적 교육사업을 빠른 속도로,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o 얼마 전 해당 부문 일군들과 전국의 고등교육단위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대학들의 2019년 교육총화회의가 진행되였음.

o 회의는 전국의 대학들사이에 벌어지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 있게 추동하여 교육사업을 빠른 속도로,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였음.

o 총화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였음.

o 여기서는 지난해 대학들의 교육사업 정형을 놓고 중앙과도급대학, 교원양성부문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별순위가 발표되였으며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였음.

o 지난해 3월 김정은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현지지도와 9월에 진행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는 교육혁명수행을 힘 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였음.

o 김일성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대학들에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비약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갔음.

- 그 결과 년간 교육사업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이 중앙대학순위에서,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이 사범대학순위에서, 평양교원대학, 신의주교원대학, 사리원교원대학이 교원대학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청진의학대학, 신의주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이 도급대학들 중에서, 평양경제기술대학, 평양료리기술대학은 직업기술대학부문에서, 평양공업대학, 신의주공업대학, 평천공업대학이 공장대학부문에서 가장 앞선 단위로 되였음.

o 많은 대학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지향하며 인공지능학과를 비롯한 새로운 학과들을 내옴으로써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수 백개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한 문제를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

o 김형직사범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청진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과정안에 반영된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천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음.

o 새 교수방법창조사업도 마찬가지임.

- 김형직사범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보급일반화하기 위한사업을 적극 벌리고 평양교원대학에서 로보트 교육방법과 주산교육방법을 비롯한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할 수 있은 것은 이사업을 대학사업의 중심목표로 내세우고 중도반단함이 없이 꾸준히 밀고나간 데 있음.

o 결코 교원수를 늘이는 사업으로만 대치할 문제가 아님.

-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큰 힘을 넣고 학위학직소유자 대렬과 10월 8일 모범교수자 대렬을 늘인 단위들의 성과가 보여주다 싶이 교원 실력이 높아진 것만큼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될 수 있는 것임.

- 교원의 자질이자 학생실력임.

o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이 권위 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세계결승경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실과 리과대학 학생들이 제44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세계결승경연 참가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여러 대학의 미더운 학생들이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성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o 교육사업에서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은 례외없이 교원진영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뒤떨어진 단위들임.

o 일부 대학들에서는 교원이 부족하여 한 교원이 여러 과목을 맡아 강의하는가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낮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여러 대학이 학위학직 소유자 비률이 낮고 전공실력 판정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결코 조건과 환경에 빙자할 문제가 아님.

o 모든 대학들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떨쳐 일어나 이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와야 할 것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주요 강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주요 내용(2.10, 중앙통신)

o 최근 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강들의 수질을 검사하였음

o 9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종합된 자료를 기자가 취재한데 의하면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의 pH, 산화도 그리고 용존산소 농도와 부유물질, 암모니아성 질소량이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

o 수질검사는 강들을 끼고 있는 평양시와 해당 도들의 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 하였음.

김정은 위원장, 故 최창수 영전에 화환 전달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배우 故 최창수(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 영전에 화환 전달(2.11, 중앙통신 · 2.12, 노동신문)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은 로력영웅이며 인민배우인 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 최창수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10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였음.

o 최창수 배우는 예술영화 <월미도>와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영화들에서 주인공역과 주역을 형상함으로써 주체영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기구 등 전달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와 기구 등 전달(2.12, 중앙방송·노동신문)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시인민병원을 새 세기 보건의학적 요구가 완벽히 구현된 지방인민병원의 본보기로 꾸려주기 위해 현대적 의료설비와 기구 등을 선물로 보내주었음.

o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였음.

- 모임에는 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환 양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병원 종업원들, 삼지연시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음.
- 선물 전달사를 박태성 당 부위원장이 하였음. 연설자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음. 토론자들은 혁명전통이 어려있는 삼지연시를 으뜸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모임에서는 당에 제출하는 맹세문이 채택되였음.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기간 연장

▌주요 내용(2.12, 중앙통신·중앙방송)

o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해 격리기간을 연장함.

o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가고 있음.

o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염병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세웠음.

o 국가적인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사회적으로 위생방역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음.

o 최근 우리나라와 린접한 지역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와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음.

o 전염병의 전파가 갈수록 국제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류입 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문제를 론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하였음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의를 심의하고 승인, 결정하였음.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함.

o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 나라에 주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함.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백두산정신’ 강조 및 정신무장 독려

▌개 요

o 사설, ‘백두산정신’ 강조 및 정신무장 독려(2.13, 노동신문)

o 제목: <백두산정신으로 만난을 격파하여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주요 내용

o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들이 백두산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려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음.

o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모진 광풍 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과시하여야 함.

o 백두산정신, 바로 여기에 격난을 맞받아뚫고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음.

- 백두산정신은 적대세력들의 압살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자력으로 번영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치게 하는 강력한 보검임.

o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임.

- 민족자주, 민족자존을 생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며 원쑤들에게는 자비나 용서를 모르는 것이 백두산정신임.

o 수령결사옹위는 백두산정신의 근본 핵임.

-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과 사령관의 명령 관철을 위함이라면 한 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는 빨찌산투사가 되어야 함.

o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 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함.

- 자력갱생을 하지 않는 것은 반당, 반혁명이며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 패배주의, 회의주의, 본위주의, 무책임성은 정면돌파전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 자력갱생 대진군을 저애하는 온갖 잡사상들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쓸어버려야 함.

- “나는 오늘 백두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였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자기 일터·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자체의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함.

o 눈보라치는 백두의 행군길을 걷는 심정으로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며 당의 의도를 현실로 꽃피우게 하는 당 정책 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어야 함.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진척

▌주요 내용(2.15, 중앙통신)

o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이 공사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o 현장 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굴착 계획이 70%이상 수행되고 기본 물길굴 도갱굴진과 기본물길굴 확장공사 실적이 높은 계선에 이르렀음.

o 지금 건설장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물길굴 공사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1호, 5호, 6호발전소 발전기실 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o 이밖에 물길굴 콩크리트타입 등이 일정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음.

‘백두의 혁명전통은 승승장구의 원동력’ 주장

▌개 요

o ‘백두의 혁명전통은 반사회주의 광풍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 주장(2.18, 노동신문 논설)

o 제목: <백두의 혁명전통은 위대하고 영광찬란한 전통>

▌주요 내용

o 백두의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혁명사상, 공격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려는 것은 당의 드팀없는 의지임.

o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계승 완성의 근본 담보임. 전체 인민이 백두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앙양기를 열어나가야 할 때임.

o 백두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혁명의 대백과전서라는데 있음.

o 벡두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백두의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이 집대성되여있음.

- 주체의 사상체계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 안에 확립된 유일사상체계임.
-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락관주의, 혁명적 동지애, 애국주의 등이 담겨져 있음.

o 백두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음.

o 백두의 혁명전통은 세계적인 대정치 동란과 전대미문의 반사회주의 광풍 속에서도 혁명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음.

o 가장 간고한 투쟁 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이 있는 한 그 어떤 격난도 헤칠 수 있고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음.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건설 결속

▌주요 내용(2.18, 중앙통신)

o 함경북도에서 계단식으로 일떠세우는 어랑천발전소의 4호발전소 여러 대상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음.

o 현재까지 공사량이 방대한 창포언제와 발전소종업원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이 완료되였음.

o 또한 수천 m에 달하는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 압력철관로설치, 발전기시운전 준비가 끝났음.

‘코로나19’ 미발생 주장 및 위생 방역사업 주력 촉구

▌주요 내용(2.20, 노동신문)

o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음. 《질병예방사업을 대중화 하는 것은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o 지금 세계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급속한 전파로 하여 재난을 겪고 있음.

o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동안에 1880여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페염(폐렴)환자로 새로 확진되고 9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함.

o 수자가 보여주듯이 신형코로나비루감염증은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이 감에 따라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음.

o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이 병의 전염, 전파경로에서 애매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o 무증상상태의 환자가 발생하고 비루스의 잠복기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더 길다는 자료가 발표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까지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o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하여 보다 각성 있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들어오지 못하였음.

o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하여 미해명문제들이 많은 조건에서 절대로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위생방역사업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함.

o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인 비상조치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장악 통제사업을 드세게 하여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서나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보건부문 일군들은 위생선전 활동과 검병검진, 소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에 총력을 다 해야 함.

o 누구나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개체위생을 잘 지켜야 함.

o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한 왁찐이 개발되지 못했고 신통한 치료약이나 치료방법도 나오지 못한 조건에서 마스크착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손을 언제나 깨끗이 씻고 몸 단련을 습관화하며 방안이나 사무실 공기갈이를 자주하는 것과 같은 초보적인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환자가 없다고 하여 탕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고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위생방역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할 것임.

‘자력갱생, 절대불변’ 강조

▌개 요

o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전진방향·발전방식’ 강조(2.21, 노동신문 논설)

o 제목: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위대함은 자력갱생에 있다>

▌주요 내용

o 국가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 인민의 대국적 자존심은 자력갱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자립·자력의 기치 높이 국가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확증하려는 것이 인민의 불변의 신념임.

o 자력갱생은 주체조선 특유의 국풍이며 인민 고유의 창조방식임.

- 자력갱생을 신념화, 체질화한 인민에게 있어서 시련의 고비들은 사상정신적 앙양의 계기로, 전반적 국력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반전되였음.

o 자력갱생은 인민들을 강대국 공민으로 떠올린 원동력임.

- 전대미문의 시련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항로에서 흔들림이 없었으며 오직 자기 힘으로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 왔음.

- 만일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태여나지도 못하였을 것임.

o 자력갱생은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발전 상승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최강의 보검임.

- 장애를 맞받아 뚫고나가는 과정에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이 강화되며 자력갱생하며 마련한 자급자족의 재부들은 번영과 발전의 밑천으로 되는 법임.

o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진군 속에서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음. 우리 국가와 인민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전진방향, 발전방식임.

‘전략자산으로써의 과학기술’ 강조

▌개 요

o 과학기술 강조,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주장(2.21, 노동신문)

o <과학기술은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전략 자산>

▌주요 내용

o 정면돌파전은 자립, 자력의 거창한 창조대전이며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강화하는 길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음.

o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확고히 선행시키며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도입하는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이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o 군사학상으로 볼 때 전략자산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의의를 가지는 무기와 물자를 두고 하는 말임.

o 일반적으로 전략자산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밑천을 말함.

o 전략자산에는 해당 나라의 국력이 비껴있음.

o 지금 정치군사적으로 우리를 더는 어쩔 수 없게 된 적대세력들은 경제기술적 봉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음.

o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적우세》는 만능이 아니며 불변한 것도 아님. 과학기술 발전의 주체, 담당자는 해당 나라 인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임.

o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룩하고 불패의 강국으로 급부상한 극적인 현실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음.

o 적들의 과학기술봉쇄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략은 주체과학의 힘을 최대로 증폭시키는데 있음.

o 우리 당이 과학기술을 전략자산으로 내세운 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인 동시에 기적으로 충만된 사회주의건설 행로의 력사적 총화이며 주동적인 공격으로 난관을 격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보란 듯이 열어나가려는 담대한 배짱의 발현임.

o 과학기술은 우리 국가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임.

o 국력은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총체적인 힘임.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력강화를 위한 제 나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는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 수, 물질적 부, 지정학적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됨.

o 과학기술은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임.

o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잃게 되고 가난과 락후, 예속과 굴종을 면할 수 없음.

o 우리 조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개화기를 펼치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된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과학기술발전전략을 떠나 생각할 수 없음.

o 그 어떤 경우에도 과학기술발전은 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립장임.

o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운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 기풍, 첨단돌파열풍이 차넘치고 과학기술발전에 전국가적인 힘이 집중되였음.

o 지금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음.

o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임.

o 경제강국 건설과 무적의 군사력 강화, 사회주의 문명 건설도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달려 있음.

o 경제부문만 놓고 보아도 경제전반의 정비보강과 발전동력의 회복, 현존토대와 현존능력의 효과적인 활용, 에네르기 절약형, 로력 절약형, 기술 집약형의 생산공정 확립,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실현, 새에네르기 자원의 개발리용, 선질후량의 원칙구현, 다수확 재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 있음.

o 최저지출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며 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임.

o 지금 생산 정상화, 생산 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는 단위들을 보면 자체의 과학기술 력량이 그쯘하며 과학기술로 난관극복의 해결책을 찾고 있음.

o 지난해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이 마련된 것은 과학농사의 덕임.

o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똑똑히 명심하고 과학기술 선행,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것임.

당 간부들의 헌신적 복무정신 강조

▌개 요

o 당 간부들의 헌신적 복무정신 강조(2.23, 노동신문 논설)

o 제목: <인민의 믿음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재부>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혁명을 하자면 인민으로부터 받는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며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자는 것을 호소하였음.

o 인민들의 믿음이야말로 일군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부임.

-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주위 사람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믿음은 매우 귀중함. 집단의 믿음, 인민들로부터의 믿음은 특히 일군들에게 있어서 생의 전부와 같음.
- 우리 사회에서 간부를 가리켜 일군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음.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는다면 그 일군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

o 혁명은 소수 혁명가들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켜 그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 때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

- 정면돌파전이 수백만 근로대중이 한결같이 떨쳐나선 애국투쟁으로 전개되도록 하자면 모든 일군들이 헌신적 복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민의 믿음과 지지를 두터이 해나가야 함.

o "인민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인민의 신임과 지지를 받을 만큼 일하고 생활하는가" 물음 앞에서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고 분발하는 것이 오늘 일군들의 자세로 되어야 함.

o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을 위하여 군중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가다운 모습임.

‘인민보건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개 요

o ‘인민보건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전염병 침습통로 철저 봉쇄,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소멸’(2.23, 노동신문/인민보건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주요 내용

o 인민보건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 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려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임.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o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님. 김일성·김정일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김일성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임.

o 우리나라의 인민적인 보건제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사상과 정치가 구현되여 있음.

o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보건부문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사회주의보건을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으로 발전시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새겨 안고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함.

o 보건부문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적 보건시책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게 하기 위하여 심혼을 다 바쳐야 함.

o 의사, 간호원들은 인간생명의 수호자,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순간도 잊지 말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복무를 체질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o 모든 의료일군들은 튼튼한 기초의학지식과 높은 림상기술, 여러 가지 외국어를 소유하며 현대의학발전 추세에 맞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습득하고 실천에 구현하여야 함.

o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살리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

o 지금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이 강도높이 벌어지고 있음.

- o 최근시기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전염병은 일단 발병하면 사회전반에 엄중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것이 상책임.
- o 국가적인 위생방역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위생방역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갖 전염병의 침습통로를 철저히 봉쇄하며 그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하고 소멸하여야 함.
- o 보건부문에서 전염병의 종류와 특징, 예방과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연구하며 위생방역사업에 필요한 검사기구들과 시약을 충분히 갖추고 어떤 정황에도 제때에 대응하여야 함.
- o 인민보건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본 동력은 인재와 의학과학기술임.
- o 중앙과 지방의 의학교육기관들을 보건부문의 인재양성기지, 학술연구기지답게 잘 꾸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o 의학과학연구부문에서는 병걸린 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병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리론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함.
- o 우리 나라에 풍부한 천연약재를 리용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좋은 의약품들을 생산하며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계속 심화시켜야 함.
- o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을 국산화하고 의료봉사의 지능화, 정보화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목적 지향성 있게 밀고나가야 함.
- o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은 현 시기 인민보건의 영상을 개선하고 사회주의보건시책이 은을 내게 하는데서 전초선이라고 말할 수 있음.
- o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함.
- o 약품포장을 위생성과 문화성, 실용성을 보장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잘하여야 함.
- o 사람들이 집중되여 있거나 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곳 특히 공업도시나 산골군의 병원들과 리진료소를 비롯한 말단단위들을 잘 꾸리고 좋은 치료설비들을 보장해 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o 먼거리 의료봉사 수준을 개선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함.
- o 국가적으로 보건부문을 최대로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원료,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 o 모든 일군들은 보건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

‘코로나19’ 의학적 감시대상자 생활 보장 및 외국인 격리

▌개 요

o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감시대상자 3,000여명 생활 보장 및 외국인 380여명 격리(2.24, 중앙방송)

▌주요 내용(2.24, 중앙방송)

o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을 휩쓰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원인 모르게 전파되고 감염증상도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 세계적인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방역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o 만회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전염병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총궐기하여 다행히도 아직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각급 기관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도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방역과 관련한 해설 선전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하고 있음.

o 각급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보건기관들에서는 정치사업과 위생선전사업을 적극 벌여 재앙적인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o 강원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는 도 당위원회, 도 인민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등 도급 기관 일군들과 보건, 교육부문 일군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선전자료와 방송선전차 편집물들을 가지고 공장, 기업소, 주민지대들에 나가 본격적인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음.

o 혜산시, 북청군, 평원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모든 일꾼들이 대상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송선전차, 이동식 증폭기재들을 통한 해설 선전을 매일 중단 없이 힘 있게 벌임으로써 방역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o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직총 중앙위원회, 농근맹 중앙위원회, 여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위생방역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각을 지니고 각급 단위들에서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o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과 각지 인민병원, 진료소들의 의료일꾼들도 성 중앙기관들과 담당단위들에 나가 위생선전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정확히 확진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 세우고 있음.

o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실태와 함께 전파경로, 발병증상, 예방치료대책 등을 인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있음.

- o 각 도 일보사들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신문에 집중 편집해서 비루스 전파와 피해상황, 예방상식들이 인민들에게 속속 침투되도록 했음.
- o 각지 일군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침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고 있음.
- o 중앙위생방역소에서는 능력 있는 방역일꾼들 주요 지점들에서 기동성 있게 파견하여 그들이 해당 단위의 보건일꾼들과 함께 검병 검진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 o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다른 나라에 갔다 온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감기를 비롯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키고 의학적 감시와 예방치료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 o 평안북도에서는 국경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위생방역사업과 관련한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3,000여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전력보장, 물자보장, 난방보장, 물보장 등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음.
- o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380여명을 격리시킨 것을 비롯해서 외국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관찰과 모든 단위들에서의 검병 검진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인재 발굴·인재육성사업 중대성’ 강조

▌개 요

o ‘인재 발굴·인재육성사업 중대성’ 강조(2.25, 노동신문 사설)

o 제목: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재육성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자>

▌주요 내용

o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가 의거할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며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선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당의 의도에 맞게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모든 부문·단위에서 인재육성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함.

o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도전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함. 인재역량만 튼튼히 꾸려놓으면 제기되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제 때에 풀어나갈 수 있음.

o 해방 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첫 회의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토의한 것도, 전화(戰火)의 나날 고지의 전사들을 대학으로 부른 것도, 고난의 행군 시기 과학교육사업 발전에 힘을 넣은 것도 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였음.

o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재능의 싹이 있고 전망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고 품을 들여 목적지향성 있게 키워내야 함.

o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국방과학자들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특출한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 있음. 이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종합적 국력이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 있는 것임.

o 당에서 과학자, 교육자들의 살림집을 제일 먼저 일떠세워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재들을 귀중히 여길 데 대하여 강조하는 진의도를 심장에 새겨야 함.

o 자기 부문, 자기 단위 과학자·기술자들에게 훌륭한 연구실과 실험실을 꾸려주고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대담하게 투자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함. 각급 당 조직들은 당의 과학기술 중시 로선과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 관철에로 일군·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 공세를 벌려야 함.

o 인재 육성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음. 일군들 자체가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인재 발굴, 양성, 동원 사업을 잘해나갈 수 있음.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

▌개 요

o ‘사상공세’ 관련 김정은 위원장 저작 발표 6주년 계기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2.25, 노동신문 논설)

o 제목: <주체의 사상론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백승의 기치이다>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의 노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발표 6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 2월 25일 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이 연설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전략적 대강임.

o 김정은 위원장은 노작에서 혁명적 사상공세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였음. 노작에는 사상공세작전을 벌릴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음.

o 노작이 발표된 후 지난 6년간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난관은 사상 최악의 것이였음. 그러나 만난을 뚫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신념을 꺾을 수 없었음.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급부상하고 강대한 국가건설위업 수행에서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 있는 격동적 현실은 주체의 사상론의 승리임.

o 현 시기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임. 또한 앞을 대다보며 책략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며, 일군들과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임.

- 사상교양사업에서 반복은 금물임. 답습한다면 만성화됨. 일부 단위들에서 사상사업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낡은 격식과 틀에 매여 있기 때문임.
- 사상공세는 철저히 책략전으로 되어,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발가놓는 대적언론전, 전파전을 단수 높게 벌려야 함.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가 발붙일 수 없게 하는데도 책략이 필요함.
- 사상사업의 첫 공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임. 일군·당원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힘든 일에 솔선을 보일 때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o 당은 일군·당원들이 정면돌파전에서 선봉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으며, 미더운 전위투사들이 대중을 교양할 때 혁명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임.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임.

경제강국 건설 위한 증산절약운동의 전군중적 전개 강조

▌주요 내용(2.26, 노동신문)

o 오늘 우리는 자력부강, 자력 번영의 기치높이 정면 돌파전을 벌리고 있음.

o 일대 생산적 앙양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증산절약운동을 전군중적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함.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o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o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o 전사회적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현 시기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음.

o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증산절약운동을 힘 있게 벌릴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전사회적, 전군중적으로 증산절약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그 어디서나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국력이 배가되게 됨.

o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임.

o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 로동으로 마련된 한 대의 설비, 한 g의 원료, 하나의 자재도 귀중히 여기고 효과 있게 리용하여 나라의 물질적 재부를 최대한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조국의 전진발전에 실제적인 보탬을 주는 참된 애국공민이 되여야 함.

o 한 토막의 강재를 놓고서도 이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공업부문 로동자들이 쇠물을 녹이느라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는가, 광산로동자들이 쇠돌을 캐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겠는가 하는 것부터 헤아릴 줄 알아야 증산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음.

o 일을 거칠고 날림식으로 하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랑비하는 현상, 나라의 재산을 제 집 물건처럼 망탕 류용하고 처분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함.

o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사장되여 있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모조리 찾아내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함.

o 생산의 량적지표와 함께 로동생산능률, 제품단위당 원가, 제품과 건설물의 질과 같은 생산과 건설의 질적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별, 작업반별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함.

- o 건설부문과 농업부문에서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운동을 힘 있게 벌리며 에네르기 절약형 건축기술과 물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함.
- o 증산절약의 방도는 기술혁신에 있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밑에 로력, 에네르기, 원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함.
- o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의 실속 있는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생산자대중속에서 증산절약을 위한 가치 있는 창의고안, 새로운 기술적 발명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함.
- o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조의 주되는 목표를 전력소비를 줄이는데 두고 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만들거나 개조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함.
- o 선질후량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그에 토대하여 량적지표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 진행해 나가야 함.
- o 지금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은 물론 공공장소들,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파철, 파지, 파유리, 파고무, 파수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페기물들이 있음.
- o 이런 것들을 제때에 수매하여 재생리용하기 위한 사업만 짜고들어도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리득을 주게 됨.
- o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회수하여 재생 리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회수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여야 함. 큰 것만 보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국가적 립장에 서서 각종 페기물을 리용하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시키며 군중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함. 누구나 재자원화에 대하여 늘 사색하고 탐구하며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현실적인 안들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o 모든 경제지도 일군들은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전략, 경영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함.
- o 모든 일군들은 로력과 설비, 자재의 리용 정형과 생산 공정을 늘 따져보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며 통제를 강화하고 랑비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함.
- o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며 집단안에 증산절약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함.
- o 모두다 증산절약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

▌개 요

o ‘산림복구전투’ 관련 김정은 저작 발표 5주년 계기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2.26, 노동신문/산림복구 전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주요 내용

o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 5돐이 되는 날임.

o 주체104(2015)년 2월 26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김일성·김정일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국의지가 맥박치고 있는 기념비적 문헌임.

o 로작에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다 같이 밀고나갈 데 대한 문제와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선전선동사업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산림을 복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산림복구전투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임.》

o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o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줄 수 있음.

o 김일성·김정일은 일찌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는데 여기에는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림을 잘 조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

o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전당, 전군, 전민이 한사람 같이 떨쳐나 조국의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애써 투쟁해온 나날이였음.

o 하루빨리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전체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의에 의하여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지금은 2단계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o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담보도, 우리 조국을 백화만발한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방도도 산림을 하루

빨리 복구하는데 있음.

o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래워야 하는 산림복구에는 많은 품이 요구됨.

o 더우기 산림복구는 생명체를 다루어야 하는 사업인 것만큼 아지 하나, 잎새 하나도 자기의 살붙이처럼 여기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필요함.

o 김정은은 로작에서 최근 년간 해마다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지만 산림조성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말로만 애국에 대하여 떠들면서 몸을 내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고 하시였음.

o 산림복구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름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함.

o 누구나 산림자원은 우리 조국의 귀중한 재부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선예술영화《숲은 설레인다》의 주인공처럼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진심과 진정을 바쳐가야 할 것임.

o 우리나라는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산림복구사업에서는 네일 내일이 따로 없으며 산림의 덕을 보지 않고 그와 전혀 인연이 없는 부문과 단위는 없음.

o 우리에게는 단합된 힘으로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치고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보란 듯이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켜온 풍부한 경험이 있음.

o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근로자들은 산림복구사업의 주인이라는 드높은 책임감을 안고 조국의 산야마다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 있음.

o 특히 산림복구전투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이 인민들과 한 전호에서 산림복구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음.

o 결과 산림조성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산림기자재공장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강원도 양묘장을 비롯하여 각지에 양묘장들이 건설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음.

o 전투현장에 발을 든든히 붙인 일군만이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하고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 년차별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할 수 있음.

o 일군들은 누구나 다 산림복구전투 현장에 직접 나가 앞채를 메고《나를 따라 앞으로！》,《나가자》의 구령을 웨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함.

o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이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명언을 심장 깊이 새기고 산림조성사업과 보호사업에 혼심을 바쳐야 할 때임.

o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애국의지가 집대성된 로작의 구절구절을 뼈에 새기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할 것임.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

▌개 요

o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수출입품 검사검역소,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 (2.26,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예방 사업이 강도높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o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감독성원들이 조금이라도 긴장성을 늦추면 커다란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o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경로가 복잡하고 비루스가 금속부분에 붙어서도 한 주일동안 생존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새롭게 밝혀진 자료들을 제때에 알려주면서 모두가 긴장하게 검사검역사업을 진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o 국경지역과 주요 항들에 위치한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철저히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o 물자들을 먼저 반입지점의 격페된 장소들에 정해진 기간 자연상태에서 방치해두고 지도서의 요구대로 철저히 소독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물자를 인계인수하는 질서를 새로 세워놓았음.

o 물자들을 소독할 때는 포장용기 뿐 아니라 안에 있는 물자들의 구석구석까지 말끔히 하여 자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관련 방학 연장 및 기숙사생 생활조건 보장

▌주요 내용(2.27, 중앙방송)

o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데 대처하여 각지 교육 및 보육기관들에서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음.

o 탁아소,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양과 방역사업이 힘 있게 전개되고 있음.

o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학생들의 방학이 연장된 데 맞게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방법론 있게 짜고 드는 것과 함께 위생방역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o 교사와 기숙사 등에 대한 소독사업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하는 한편 기숙사생들의 생활조건 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 대한 검진과 의학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o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의 교원들은 학부형들과 항시적인 연계를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들이 위생방역과 관련한 사항들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음.

o 각지 유치원, 탁아소의 교양원, 보육원들도 가정들에서 방안 소독과 공기갈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손씻기를 자주 하고 몸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

o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설선전과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 및 보육기관들에서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책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남동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

▌개 요

o 방송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시마다 보도(2.1~2.7, 중앙통신)

▌주요 내용(2.7, 중앙통신)

o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7일 남조선에서 24번째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음.

o 그는 20대 남성으로서 지난 1월 중국 무한시에서 돌아온 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격리되여 있었다고 함.

국방부 장관 발언 등 우리 군 비난

▌개 요

o 국방부 장관의 미 육군성 장관 및 태평양 육군사령관 접견시 발언 비난(2.3,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 남조선에 온 미륙군장관과 미태평양사령부 륙군사령관을 만나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철통같은 련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고 함.

o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o 남조선군부세력이 새해 첫날부터 군사적 도발소동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o 1월 1일 남조선군에 련합훈련과 연습을 통한 철통같은 련합방위태세를 유지할데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하달된데 이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자는 최전연지대를 돌아치며 그 누구에 의한 《군사적위협고조》와 《적도발시 단호하고 주저없는 대응》을 떠들었음.

o 남조선해군 1함대소속 각종 함선들과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상에서 총포를 쏘아대면서 해상기동훈련을 감행하는 등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계전투준비훈련, 해상기동훈련, 경계비행연습을 끊임없이 벌리였음.

o 지어 《북의 각종 미싸일들에 대비한 요격훈련》이라는 도발적 망언을 내뱉으며 조선동해상에 탄도탄요격미싸일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수역을 설정해놓았는가 하면 《국방관련점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정밀유도무기확보와 새로운 전투기, 미싸일개발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 《F-35A》도입 등 무력증강계획까지 세워놓았음.

o 설명절기간에도 국방부 장관이란자는 청와대주변에 배치한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포대를 찾아가 《북미싸일위협》에 대응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렸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은 서해전역의 해안경계부대를 싸다니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유지》를 떠들어댔음.

o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o 이번에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상전 앞에서 늘어놓은 넉두리를 통해 군부호전광들의 동족대결소동의 목적이 다시 한 번 적라라하게 드러났음.

o 력사적으로 잔명부지의 출로를 동족대결에서 찾은 자들은 례외 없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음.

‘한미 합동군사연습 확대 방안 추진’ 비난

▌주요 내용(2.6, 중앙통신)

o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군부당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지게 될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2일 밝혀졌음.

o 군부호전광들은 지난 시기 일부 병력만 그곳에 보내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키던 관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땅크, 자행포를 비롯한 기계화타격수단들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음.

o 뿐만 아니라 참가병력도 이전보다 더 늘일 것을 계획하고 있음.

o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 있음.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

▌개 요

o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2.26, 우리민족끼리)

▌주요 내용

o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북남관계파탄책동,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o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개성공업지구재가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o 좋게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가 하루아침에 폐쇄된 것이 천하대결광녀인 박○○ 역도와 보수패당의 북남관계 파괴책동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

o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조치는 사실상 그 누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남측기업과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무지무능한 자해행위임.

o 10여 년간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000여개의 관련기업들에 리득을 가져다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중단으로 남측기업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는 미국상전의 장단에 춤을 춘 박○○ 보수《정권》과 현 남조선당국이 초래한 것임.

o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그 눈치만 보는 당국의 대미굴종적인 태도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였다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함.

o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은 물론 북남협력사업들이 이미 물 건너갔으며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음.

o 미국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맹목적인 추종행위가 계속되고 동족을 해치려는 침략적인 전쟁책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한 지경에 빠져들게 되어있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함.

o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간섭과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상전에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망쳐놓은 현 집권당국에 그 죄과를 따져야 할 것임.

미래통합당 출범 비난

▌주요 내용(2.27, 중앙통신)

o 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통합신당으로 자칭하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정식 내왔음.

o 이것은 사실상의 《새누리당》부활과 다를 바 없음.

o 더우기 이전 집권자를 찜 쪄 먹을 정도로 매국역적질과 부정부패행위의 능수인 황○○이 수장노릇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장차 어느 길로 가겠는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함.

o 극도의 위기에 놓인 저들의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고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을 다시 차지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임.

o 인민들의 거세찬 초불항쟁에 의해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후 저들의 가긍한 처지를 뒤바꾸기 위해 《민생대장정》놀음도 벌려보고 심지어 《COVID - 19》로 인한 전염병사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시정배들을 절규하는 민심의 배척 기운은 날로 고조되고 있음.

o 이에 바빠 맞은 보수역적들이 기만적인 창당놀음으로 남조선사회 각계의 싸늘한 눈초리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는 것임.

o 이를 통해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수들을 누르고 《국회》를 장악함으로써 보수《정권》창출의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보자는 것이 적폐세력들이 노리는 진목적임.

o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망상에 불과함.

o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는 법임.

o 민심에 역행하고 대세를 거스르며 씻을 수 없는 대역죄만을 덧쌓고 있는 보수 반역의 무리들은 반드시 력사의 무덤 속에 매장되고야 말 것임.

대외동향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위문 서한 발송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분투' 위문 서한 발송 및 당 중앙위원회의 '지원금' 전달(2.1,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이 습근평 주석에게 중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페염(폐렴)을 막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한을 보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에서 전염병방역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국의 전체 당원들과 의료일군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고 전염병으로 혈육을 잃은 가정들에 심심한 위문을 표시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전염병발병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며 형제적 중국인민들이 겪는 아픔과 시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 싶은 진정을 전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현명한 령도 밑에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이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전체 당원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전하고 중국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축원하였음.

o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1월31일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내였음.

WHO,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개 요

o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2.1, 중앙방송·노동신문)

▌주요 내용

o 세계보건기구가 1월 30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 것을 전례없는 사태로 평하면서 이 비루스가 세계적 범위에로 전파되고 있어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o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일 현재 국내에서 9,682명이 확진되였으며 213명이 사망하였음.

o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WHO,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

▌개 요

o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2.4, 중앙방송·노동신문)

▌주요 내용

o 신형코로나비루스가 감염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가기구가 1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음.

- 세계보건기구는 비루스의 주요 전염 경로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이며 무증상 상태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인정한다고 하면서 현재 그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현황 보도

▌개 요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 보도 (2.5, 중앙통신·노동신문)

▌주요 내용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힌데 의하면 3일 24시 현재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환자는 2만 438명이며 사망자는 425명이 달함. 완쾌되여 퇴원한 환자는 632명임. 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2만 3,214명이며 도합 17만 1,329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 함.

북-러 친선 조약 20주년 계기, 친선 강조

▌개 요

o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 20주년 계기, 북러 친선 강조(2.9, 중앙통신·노동신문)

o 제목: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는 조로친선>

▌주요 내용

o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음.

- 조약에 기초하여 두 나라는 평등,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친선의 유대를 강화해왔음.

o 김정일 장군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있은 평양과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상봉들은 조러 친선관계를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사변으로 기록되였음. 이 상봉들을 계기로 '조로공동선언'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전통적인 친선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음. 지난해 4월 푸틴 대통령과 첫 상봉을 하고 친분관계를 맺어 전략적·전통적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였음.

o 올해 러시아 인민은 조국전쟁승리 75주년을 경축하게 됨. 이를 계기로 새 세대들이 전 세대들의 위훈을 따라배워 조국수호정신과 애국주의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밀고나가고 있음.

o 친선관계 발전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을 추동하고 있음.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군사활동 비난

▌개 요

o 최근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군사활동 비난(2.19, 중앙통신 논평)

o 제목: <도발적인 군사훈련이 노리는 목적>

▌주요 내용

o 최근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음.

o 얼마 전 항공 자위대 소속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B-52 핵전략폭격기 2대를 포함한 美 공군의 전투기들과 함께 일본 주변에서 련합공중훈련을 벌렸음.

o 이뿐이 아니라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지바현에서 대규모 련합훈련, 구마모도현에서 공동훈련, 오끼나와현에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련이어 감행되고 있음.

o 이는 지역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호전적 망동으로서 군사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일본의 기도가 로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실전능력을 강화하고 재침 준비를 완성하자는 것이 일본의 목적임.

o 최근 수상과 방위상, 내각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 정객들이 일미동맹을 두고 치켜세우면서 그 강화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흉심의 발로임.

o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상전의 힘을 입어 과거의 침략사를 재현하려고 날뛰는 일본이야말로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야만국임.

o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차례질 것은 섬나라의 완전 파멸뿐임.

일본 '무력증강' 비난

▌개 요

o 일본의 '북 탄도미사일 발사 방해전파 장비 도입 착수와 고속 활공탄 개발 추진' 비난(2.26, 중앙통신 논평)

o 제목: <안보위기 고취는 전쟁국가의 상투적 수법이다>

▌주요 내용

o 일본이 무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음.

o 최근 일본 방위성은 우리의 '탄도미싸일 위협'을 운운하며 새로운 전파장애장비를 개발·도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표한데 이어 오끼나와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는 지대함 유도탄 배비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 억제력 강화'로 역설해댔음.

o 이것은 '안보 위기'를 고취하여 군사 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상투적 수법임.

o 일본은 파렴치하게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를 그 무슨 '위협국가'로 매도하며 저들의 군사대국화 책동을 정당화해 나서고 있음.

o 국제사회 앞에 피해자로 둔갑하여 '안보 수호'의 합법적 명분을 쌓아보자는 것이 바로 일본 반동들의 교활한 술수임.

o 힘으로 주변국들을 제압하고 '동방의 맹주'가 되여 옛 식민지 종주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야욕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음.

o 어리석은 추태가 가져오는 후과는 언제나 비참한 법임.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국무위원장)

2.1.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분투' 위문 서한발송 및 당 중앙위원회 '지원금' 전달(2.1, 중통·2.2, 중방송·노동)

2.1. 쿠웨이트·팔레스티나·콩고·콩고민주공화국·이집트 정상들의 '2020년 새해' 축전에 대한 '사의 표명' 답전(2.1, 중통)

2.3. 중국·러시아·쿠바·라오스 등 각국 정상 및 인사들에게 2020년 연하장 발송(2.3, 중통·중방)

2.3.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주석에게 '베트남공산당 창건 90주년' 계기 축전(2.3, 중통·중방)

(미상)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2.8, 중방)

2.10. 故 최창수(노력영웅, 인민배우, 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 영전에 화환 전달(2.11, 중통·중방)

2.11.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41주년 축전(2.11, 중통)

(미상) 나선시 나진지구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2.13, 중통)

2.15. 세르비아 독립기념일 계기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축전(2.15, 중통·중방)

(미상)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8주년 계기 당 중앙위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통·중방)

(미상) 김정일 생일 계기 전국 원아들·소학교 학생들·어린이들에게 '선물(연필·지우개·크레용·수채화구 등 학용품들과 당과류)' 전달(2.16, 중방)

(미상) 강원도 문천시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2.20, 중통)

2.18. 김정일 생일 계기 시리아 대통령 축전에 대한 답전(2.21, 중통·중방)

2.21. 허종만 '총련' 의장의 85세 생일 축전(2.23, 중방·중통)

2.25. 쿠웨이트 국왕에게 독립기념일 축전(2.25, 중통·2.26, 중방)

(미상)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 장관·원수 사망 관련 유가족들에게 위문 전문 발송 및 영전에 화환 송부(2.27, 중통·중방)

2.27.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독립기념일 축전(2.27, 중통)

2.28. 인민군대들(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의 합동타격 훈련 지도 및 감사 전달(2.29, 노동·중통·중방)

(미상)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2.29, 노동·중통·중방)

강봉훈(자강도 당 위원장)

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전달모임(화평군) 참석(2.3, 중통)

김봉석(평양시 당 부위원장)

2.12. 김일성종합대학 에너지과학부 '3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모임 참석(2.13, 중방)

김봉영(함경남도 인민위원장)

2.12. 광명성제염소 소금생산공정 조업식 참석(2.12, 중통·중방)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2.12. 광명성제염소 소금생산공정 조업식 참석 및 조업사(2.12, 중통·중방)

김영환(양강도 당 위원장)

2.11.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시 인민병원에 보내준 선물 전달모임 참석(2.12, 중방)

김재룡(내각 총리)

(미상)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 및 보고(2.1, 중통)

(미상)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탄소하나화학고업 대상건설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2.4, 중통·2.5, 중방)

(미상)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남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 현지 요해(2.11, 중통)

(미상)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8주년 계기 김정은 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동행(2.16, 중통·중방)

(미상)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장산광산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풍년광산을 현지에서 요해(2.16, 중통·중방)

리선권(외무상)

2.11. 이란 외무상에게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41주년 축전(2.11, 중통)

2.13. 북-적도기니 외교 관계 수립 51주년 계기 적도기니 외무 및 협조상에게 '양국 친선협조 관계 강화발전' 강조 축전(2.19, 중통)

박봉주(당 부위원장)

(미상)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증산광산 △영유광산 등 여러 단위 현지 요해(2.3, 중통·중방)

(미상)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8주년 계기 김정은 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동행(2.16, 중통·중방)

박철민(청년동맹 위원장)

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전달모임(화평군) 참석(2.3, 중통)

박태성(당 부위원장)

2.11.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시 인민병원에 보내준 선물 전달모임 참석 및 전달사(2.12, 중방)

송석봉(양강도 당 부위원장)

2.7.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 결의모임(백두산정) 참석(2.8, 중방)

정영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2.2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출발모임(삼지연시) 참석 및 연설(2.24, 노동)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미상)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현지 요해(2.5, 중통·중방)

(미상)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8주년 계기 김정은 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동행(2.16, 중통·중방)

최휘(당 부위원장)

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전달모임(화평군) 참석 및 전달사(2.3, 중통)

2.3.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 포평 도착모임(포평혁명사적지) 참석(2.3, 중통·중방)

월간 보도일지

2.1.(토)

대내
- o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중앙통신)
-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15호(사회주의 애국림 칭호 수여), 217호(모범체육군 칭호 수여) 발표(중앙방송)
- o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출발모임 진행(중앙통신)
- o 성·중앙기관 직맹조직들의 직관선동경연 진행(중앙방송)
- o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에서 겨울철 야영 진행(중앙방송)
-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사업 강조(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전개하자)
  - 황해남도, '치료대 조직·환자격리 병동 전개·외국 출장자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 조직사업' 등 방역대책사업 상세 소개(중앙방송)
  - 평안북도, 해외 출장자·외국인 접촉 가족들까지 격리하여 의학적 감시 등 예방대책 실시(중앙방송)
  - 평안남도 회창군·양강도·자강도, '위생선전사업과 검병·검진사업 전개 및 외국 방문자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 실시와 해당한 대상들 격리 역학감시' 진행(중앙방송)

대남
- o MBC 인용, 국내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대외
-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분투' 위문 서한 발송 및 당 중앙위원회의 '지원금' 전달(중앙통신)
  - 중국 외교부·국무원 판공청 등 신종 코로나 급속 전파 관련 '긴급조치' 및 러시아의 '긴급 방역대책 수립' 소개(중앙통신)
  - 홍콩대학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중앙방송)
  -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중앙방송)
-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쿠웨이트·팔레스타인·콩고·콩고민주공화국·이집트 정상의 2020년 새해 축전에 대한 '사의 표명' 답전 발송(중앙통신)

2.2.(일)

대내
- o '우리의 혁명진지는 강력한 자력갱생 진지로 꾸려지게 되었다'고 김정일 업적 찬양(노동신문/자력부강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
- o 보건성·인민보건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위생선전사업' 활발히 진행(중앙통신)

대남
- o MBC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5명으로 증가 보도(중앙통신)

대외
-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피해 확대 소식을 지속 추적, 감염증 차단을 위한 조치들 보도(중앙방송)

o 기타동향
- 몰디브 대통령·파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및 각계 인사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해에 즈음하여 연하장 발송(중앙통신)

2.3.(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전국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중앙통신)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등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 창건 75주년 맞이 강조(노동신문/당 창건 7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o 김정일의 원평대경수산사업소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올해 첫 세쌍둥이, 평양산원에서 퇴원(중앙통신)
o 고려의학종합병원, '고려의술 3.5' 등 전통의학 관련 정보기술제품 개발(중앙통신)

대남
o 국방부 장관의 미 육군성 장관 및 태평양 육군사령관 접견시 발언 비난(중앙통신)

대외
o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중앙통신/논평, 군국화 책동으로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오명과 파멸의 운명뿐이다)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베트남 정부, 2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건비상사태' 선포(중앙방송)
- 필리핀, 2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중앙방송)
- 중국 심전시 제3인민병원, '확진자의 대소변을 통한 전염 가능성 연구결과' 발표(중앙방송)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총비서에게 '베트남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2020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인사들에게 연하장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2.4.(화)

대내
o 김재룡 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현지 요해(중앙통신)
o 제35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식 진행(중앙통신)
o 평안남도 은산군, 현대적인 누에 소독약 생산기지건설(중앙통신)
o 김만유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차단 '방역활동 주력' 보도(중앙방송)

대남
o CBS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6명으로 증가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일본의 우주작전대 신설 및 방위성설치법 개정안 승인 등 '우주군사화·군사대국화' 비난(중앙통신/논평,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o 총련 본부위원장·지부위원장·중앙단체·사업체책임자 회의(도쿄 조선회관) 진행(중앙통신)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상태 전파 가능성 확인' 관련 보고서 발표(중앙방송)
- 중국에서 감염자 증가 및 전염병 피해 확대(중앙방송)
- 러시아 정부, 2월 1일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지시문 발표(중앙방송)

2.5.(수)

대내
- o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o 농업연구원, 올해 중에 완공할 계획 밑에 'ㄷ'자형 건축공사 추진(중앙통신)
- o 채취기계공업부문, 1월 인민경제계획 156% 초과 수행(중앙방송)
- o 일용품공업부문, 1월 인민경제계획 114% 완수(중앙방송)
- o 마스크 생산 본격 가동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에 총력(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 o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8명으로 증가 보도(중앙통신)
- o MBC 인용, 파주시·연천군·화천군에서 죽은 멧돼지 16마리 발견 '아프리카돼지열병 계속 전파' 보도(중앙통신)

대외
-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 보도(중앙통신)
- o 시마네현 정장의 독도 영유권 발언 비난(중앙통신/독도강탈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어리석은 행위)

2.6.(목)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 건설 지원 일꾼·근로자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사감독법' 수정·보충(중앙통신)
- o 전국 혁명사적 일꾼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시작(중앙통신·중앙방송)
- o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전 긴급 조치(중앙방송)

대남
- o MBC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3명으로 증가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o '한미 합동군사연습 확대 방안 추진' 비난(중앙통신)
- o 연합뉴스 인용, 우리 공군의 '2020 실버 플래그 합동군사훈련 참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세계 각국으로 계속 확대(중앙방송)

2.7.(금)

대내
- o '정면돌파사상'은 '백두의 공격정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투쟁방식' 강조(노동신문/우리 당의 정면돌파 사상은 백두산공격정신의 빛나는 구현)
- o '건군절' 72주년 계기, '김일성의 영도아래 해방된 지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정규화된 혁명무력 탄생' 찬양(중앙통신)
- o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진행(중앙통신)
- o 전국 청소년학생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대' 주요 일정 소개(중앙통신)
- o 철도운수부문, 1월 화물수송계획 105.1% 초과 수행 및 원산제염소에서 올해 첫 소금 생산 시작(중앙방송)
- o 평양시·양강도 등, '자급비료 생산·반출 일정 계획보다 앞서 수행'(중앙방송)
-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 강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방역 위한 약품 생산보장(중앙통신)

대남 o MBC 인용, 국내 2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중국·러시아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소개(중앙방송)
- 러시아 국민 128명과 아르메니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국민 16명과 미국인 350명·오스트레일리아 200명이 비행기로 중국에서 귀국(중앙방송)
-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28명으로 증가(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중국 베이징조아국제문화교류중심,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군절' 72주년 계기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2.8.(토)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노동신문)

o '건군절' 72주년 사설, '정면 돌파전에서 혁명 강군의 위력을 높이 떨칠 것' 주문(노동신문/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이다)

o 인민군 장병·근로자·청소년학생, '건군절'을 맞아 김일성 부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

o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들, 결의모임 진행 및 '전국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중앙방송·노동신문)

o 정월대보름 명절을 맞는 각지 소식 보도(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노력 소개(중앙통신/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2.9.(일)

대내 o 국가우표발행국, '전원회의 기본사상·기본정신' 반영 우표 발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28권' 출판(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KBS 인용, 국내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대외 o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 20주년 계기, 북러 친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는 조로친선)

2.10.(월)

대내 o 개성시 민족유산보호부문, 올해 3월 대흥사 대보수 예정(중앙방송)

o 국가과학원·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갈 펄프로 질 좋은 종이 대량생산 토대' 마련(중앙통신)

o 풍년광산·증산광산·영유광산 등 '인 회석광산들의 환원복구 사업' 추진(중앙통신)

o 청진트랙터부속품공장 등 농기계공업관리국 산하 공장들, '1월 트랙터 부속품 생산계획 115%·농기계 생산계획 104%' 수행(중앙방송)

o 전국대학, 2019 교육총화회의 진행(노동신문)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대책 일환 압록강·두만강·대동강 등 주요 강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중앙통신)

o 호 담당 의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활동 소개(중앙통신)

대남 o 9일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7명으로 증가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대외 o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본부위원장 회의(도쿄) 진행(중앙통신)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세계보건기구(WHO), '20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급성호흡기질환' 임시 명칭 관련 입장 표명(중앙방송)
-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자국민 소개(疏開)(중앙방송)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9일까지 감염 사망자 908명 등 현황 발표(중앙방송)

2.11.(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배우 故 최창수(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 영전에 화환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재룡 내각 총리,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남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 현지 요해(중앙통신)

o 사설, '오늘 우리가 의거할 전략자산은 과학기술' 강조 및 과학자·기술자의 성과 독려(노동신문/과학자, 기술자들은 정면 돌파전의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기수, 척후병이 되자)

o 제35차 평양기계대학·평양교통운수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중앙통신)

대남 o MBC 인용, 국내 2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일본, 북 미사일시설 탐지 위한 새 정보수집위성 발사' 비난(중앙통신/논평,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이슬람교 혁명승리' 41주년 축전(중앙통신)
- 리선권 외무상,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에게 축전(중앙통신)

2.12.(수)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와 기구 등 전달(중앙방송·노동신문)

o 삼지연시 3단계 공사 추진(중앙통신)

o 광명성제염소 소금생산공정 조업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코로나19(신형 코로나비루스)'[1] 감염증 '격리 기간' 연장(중앙통신·중앙방송)

*우리정부, WHO의 'COVID-19' 명명 발표(2.11.)에 따라 '코로나19'로 한글 명칭 결정(2.12.)

o 북 적십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관련 적시적 대책 강구(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KBS 인용,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첫 포획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확장·개건 비난(중앙통신/논평, 침략적 정체를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물)

2.13.(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나선시 나진지구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사설, '백두산정신' 강조 및 정신무장 독려(노동신문/백두산정신으로 만난을 격파하여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o 함경북도, 어랑천4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돌입(중앙방송·노동신문)

o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농업 발전·건강 증진 주제 과학영화 창작(중앙통신)

o 김일성종합대학 에너지과학부에 '3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중앙방송)

대남 o MBC 인용, 화천군·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 등 '현재까지 확진 183건'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WHO, 신종 코로나 감염에 의한 전염병을 'COVID-19'로 명명(중앙방송)
- WHO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기초 예방책 권고사항 8개항 소개(중앙방송)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인터넷 기자회견, '중국 체류 외국인 27명 감염' 언급(중앙방송)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11일 하루 동안 '2,015명 확진 및 97명 사망' 등 현황 발표(중앙방송)
- 중국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11일 하루 동안 성에서 '1,638명 감염 및 94명 사망' 등 현황 발표(중앙방송)

2.14.(금)

대내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호,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 3대혁명붉은기' 및 '3대혁명붉은기' 수여(중앙방송·노동신문)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호,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 영예의붉은기' 및 '영예의붉은기 수여(중앙방송·노동신문)

o 해주시 산림경영소, 수지경판온실 건설 마감단계 주력(중앙방송)

o 원산구두공장, 새 학년도 학생용 구두생산 결속(중앙통신)

o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겨울철 답사 행군 참가자 5만 명, 백두산답사 열풍 고조 주장(중앙통신)

o 인민보건사 편집위원회, '코로나19' 위생선전을 위한 해설담화자료와 잡지 집필 및 배포(중앙방송)

o 김정일 생일(2.16, 광명성절) 78주년 관련 동향
- 얼음조각축전-2020, 삼지연시에서 연일 진행(중앙통신)
- 총서 '불멸의 향도' 등 김정일 찬양 소설문학작품, 지난 8년간 수백 편 창작 발표(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13일까지의 중국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및 확진자 등 현황 보도(중앙방송)

o 김정일 생일(2.16, 광명성절) 78주년 관련 동향
-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통신)
- 남아프리카공산당 총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스위스 조선위와 덴마크-북 친선협회, 만수대언덕 김일성 부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
-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등 외국 단체 및 인사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2.15.(토)

대내 o '김정일 생일' 78주년 계기 업적 찬양(노동신문/장구한 혁명 영도사를 영웅적 투쟁과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으신 혁명의 대성인)

o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진척(중앙통신)

o 전국 청년동맹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세르비아 공화국 국경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일 생일’ 78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에 답전(중앙통신)
- 태국 국왕, 김정은 위원장의 ‘태국 국경절’ 축전에 답전(중앙통신)

2.16.(일)

대내 o ‘김정일 생일’ 78주년 관련 동향
-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원아·소학교 학생·어린이에게 ‘선물’ 전달(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 및 각지에서 경축공연과 평양과 지방의 각급 단위들에서 체육경기 진행(중앙통신)
- 김정일 ‘선군혁명업적’ 찬양 및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독려(노동신문/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애국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일화’ 탄생 과정 및 수상경력 등 소개(중앙통신)

o 김재룡 내각 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KBS 인용,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o KBS 인용,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현황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코로나19 관련 대외동향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인용, 확진·사망·완치 현황 보도(중앙방송)
- 중국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인용, 확진·사망·완치 현황 보도(중앙방송)
- 일본 후생노동성, 요코하마항 정박 대형유람선 19일까지 3천4백명의 승객·승무원들 객실 대기 요구(중앙방송)
- 프랑스 보건 장관, 코로나19 감염환자 ‘유럽에서 첫 사망’ 발표(중앙방송)
- 이집트, 14일 첫 코로나19 감염환자 발생(중앙방송)

o 재중조선인총연합회·반제민전 중앙위원회·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김정일 생일’ 78주년 계기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2.17.(월)

대내 o ‘김정일 생일’ 78주년 계기 각지의 김정일 동상에 근로자·인민군장병·청소년학생, 꽃바구니 진정(노동신문)

o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노동자·지식인·농민 등, 2월 ‘300여개 단체 1만3천5백 명 백두산 밀영 고향집 방문’ 선전(중앙방송)

대남 o MBC 인용, 국내 30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김정일 생일’ 78주년 계기 총련 중앙사진전시회 진행(중앙통신)

2.18.(화)

대내 o ‘백두의 혁명전통은 반사회주의 광풍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 주장(노동신문/백두의 혁명전통은 위대하고 영광찬란한 전통)

o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건설 결속(중앙통신)

대남
o CBS 인용, 대구에서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o MBC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추가 확진' 보도(중앙통신)

대외
o 미국 대외정책연구기관 산하 연구소, 미군 '무인기 이용 살육만행' 폭로(노동신문)

2.19.(수)

대내
o '자주·자립·자위 노선'은 '국가·인민의 존엄 수호 위한 유일한 길'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 실현의 지름길' 강조(노동신문/자주, 자립, 자위의 길은 우리 혁명의 불변침로)
o 평양의학대학, 감기 예방 및 초기증상 치료 '피돌린산 감기겔' 연구(중앙방송)
o 올해 6개 구간에서 '이음목 없는 철길' 부설공사 추진(중앙통신)
o 민족유산보호국, 개성시 고려박물관 건설과 성천군 동명관 건설·묘향산 명승지 참관도로 확장공사 및 평양시 연광정 만화루 대보수와 단청보색 사업 계획 보도(중앙방송)
o 전국 여맹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중앙통신)

대남
o CBS 인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46명으로 급격히 증가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최근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군사활동 비난
(중앙통신/논평, 도발적인 군사훈련이 노리는 목적)
o 코로나19 관련 대외동향
– 중국에서 17일 '코로나19' 전파방지사업 중앙지도소조회의 소집 및 '방역사업 관련 조치 제때 실시·호북성 외부 출로 관리통제 강화' 추진(중앙방송)
– 러시아 아메로플로토 항공사, 17일 중국행 비행기 운항횟수 축소(3.18~28, 베이징·상해운행 매일 1회로 축소 등) 통보(중앙방송)
o 기타동향
– 리선권 외무상, 적도기니 외무상에게 북-적도기니 외교 관계 수립 51주년 축전(중앙통신)

2.20.(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강원도 문천시 문평동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코로나19 미발생 주장 및 '모든 사회성원, 긴장 유지·위생방역사업 주력' 촉구(노동신문)
o 코로나19 전파방지사업 강화 및 증상·치료·예방대책 해설 선전사업 지속(중앙통신)
o 서해 바닷가 양식사업소들, 매일 수백 톤의 다시마 생산성과 확대(중앙방송)
o 전사회적·전군중적 '폐기폐설물·유휴자재 재자원화 사업' 전개(중앙통신)

대남
o CBS·KBS 인용, 국내 코로나19 감염 빠른 속도로 증가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o KBS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227건으로 계속 증가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김정일 생일' 78주년 경축모임 진행(중앙통신)

2.21.(금)

대내
o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전진방향·발전방식' 강조
(노동신문/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위대함은 자력갱생에 있다)

o 과학기술 강조,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주장(노동신문, 과학기술은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전략자산)

o 금속공업부문, 철강재 생산능력 확장 주력(중앙통신)

o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새 품종의 온실오이 육종(중앙통신)

대남

o 코로나19 관련 대남 동향

- 보도 인용,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MBC 인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156명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MBC 인용, 우리 정부의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o KBS 인용, '강원도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 1구 발견'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시리아 대통령의 '김정일 생일' 78주년 축전에 답전(중앙통신·중앙방송)

o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일 생일' 78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2.22.(토)

대내

o '당 사업' 관련 김정은 위원장 업적 찬양
(노동신문/논설,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혁명적 당건설의 걸출한 영재이시다)

o 국토환경보호성, '코로나19' 전파경로 대처 주요 강하천·호수 수질분석 강화(중앙방송)

o 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 등 각지 농업근로자들, 농사준비 박차(중앙방송)

o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총 건축공사실적 90% 계선 돌파 및 마감공사 완료 담보 마련(중앙통신)

o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 활발(중앙통신)

o 서해 바닷가양식사업소들, 매일 수백 톤의 다시마 생산(중앙통신)

대남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인용, 국내 확진자 204명 보도(중앙통신)
- MBC 인용, 대전 첫 확진자 발생 및 국내 2번째 사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지도소조회의 소집 및 후베이성 폐렴방지지휘부, 기업들에 운영재개 불가 통지(중앙방송)
-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4월 하순경 진행 예견 및 상해시 중산병원, 평균 10분 이내 감염 확인 검사기구 개발(중앙방송)
- 이탈리아 확진자 14명으로 증가 및 레바논에서 첫 감염자 등록 등(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오만 신임 술탄, 김정은 위원장의 즉위 축전에 답전(중앙통신·중앙방송)

2.23.(일)

대내

o '인민보건 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전염병 침습통로 철저 봉쇄,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소멸'(노동신문/사설, 인민보건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o 당 간부들의 헌신적 복무정신 강조
(노동신문/논설, 인민의 믿음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재부)

o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모임 진행(중앙통신)

대남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방송 인용, 국내 확진자 556명 및 사망자 발생 소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KBS 인용, '미 국무성 한국 여행경보수준 2단계 조정' 보도(중앙통신)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허종만 '총련' 의장 85세 생일 축전(중앙방송·중앙통신)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2.14.), 허종만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 수여(중앙방송·중앙통신)

2.24.(월)

대내
o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감시대상자 3,000여명 생활 보장 및 외국인 380여명 격리(중앙방송)
o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홈페이지 개설(중앙통신)
o 전국 여맹일꾼들, 19일부터 24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중앙통신)

대남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연합뉴스 인용,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격상(경계→심각)'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KBS 인용, 대구·김포 등 어린이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CBS 인용, 우리 군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

대외
o 1904년 '한일의정서' 소재 과거사문제 관련 대일 비난
(노동신문/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한 일제의 죄악)
o 삼포왜란 소재 과거사문제 관련 대일 비난(중앙통신/조선침략사에 기록된 삼포왜란)
o 쿠바·라오스·네팔·말레이시아 등 재외 대표부, 김정일 생일 관련 행사 진행(중앙통신)

2.25.(화)

대내
o '인재 발굴·인재육성사업 중대성' 강조
(노동신문/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재육성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자)
o '사상공세' 관련 김정은 위원장 저작 발표 6주년 계기 '사상사업의 공세적 전개 강화' 강조
(노동신문/주체의 사상론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백승의 기치이다)
o '천리마시대' 사회주의 공업화 실현 등 김일성 업적 찬양(중앙통신)
o 강원도 임업관리국, 산지 통나무·동발나무 생산 매일 120%·250% 초과 생산(중앙방송)
o 황해남도 연안군, 알곡재배면적 확보사업 전개 결과 '비경지·주민지구토지·산업토지·산림토지' 등에서 약 3.4㎢(340여 정보) 경지 확보(중앙방송)

대남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MBC·CBS 인용, 국내 확진자 893명 및 사망 9명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CBS 인용, 우리 군 확진자 13명·격리 350여명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당국,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 시행' 및 '국회, 의원회관·본관 폐쇄', '사법당국, 전 지역 법원 재판휴정 권고' 보도(중앙통신)

대외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인용, 총 확진자 7만7천6백58명 등 보도(중앙방송)
-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등 감염 및 사망 현황 보도(중앙방송)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쿠웨이트 국왕에게 ‘독립기념일(국경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2.26.(수)

대내 o 경제강국 건설 위한 증산절약운동의 전군중적 전개 강조
(노동신문/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자)
o ‘산림복구전투’ 관련 김정은 저작 발표 5주년 계기 ‘산림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
(노동신문/산림복구전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o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수출입품 검사검역소, 물자 검사검역사업 고강도 전개(중앙통신)
o 평양버섯공장, 버섯재배기술 공정 새롭게 확립(중앙방송)
o 해양심층수 여러 부문 이용 등 해양과학기술 적극 연구(중앙통신)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대의원들, 백두산 등정(중앙통신)
o 장애인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담보’ 선전(중앙통신)

대남 o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남측의 자해행위’ 주장(우리민족끼리)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인용, 국내 확진자 977명 및 사망 10명 보도(중앙방송)

대외 o 일본의 ‘북 탄도미사일 발사 방해전파 장비 도입 착수와 고속 활공탄 개발 추진’ 비난
(중앙통신/논평, 안보위기 고취는 전쟁국가의 상투적 수법이다)

2.27.(목)

대내 o 당원들의 사상무장 및 당조직의 역할 강조
(노동신문/사설, 정면돌파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자)
o 조선자연보호연맹, 서해연안지역에서 ‘새로운 습지보호지점들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심화(중앙통신)
o ‘코로나19’ 관련 학생들의 방학 연장 및 기숙사생 생활조건 보장(중앙방송)

대남 o 미래통합당 출범 비난(중앙통신/논평, 민심을 기만하는 정치적 야합놀음)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연합뉴스 인용, 국내 확진자 1,595명·사망 13명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강화도조약(1876년) 관련 대일 비난(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통신)
o ‘총련’,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 전개(중앙통신·중앙방송)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세계관광기구·세계보건기구 공동성명 발표, ‘COVID-19에 대한 여행 및 관광부문 대응 협력’(중앙방송)
- 브라질·그리스·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 등 첫 확진자 발생(중앙방송)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드미트리 야조프 前 소련 국방상·원수 사망 관련 유가족들에게 위문전문 발송 및 고인의 영전에 화환 송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도미니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일(국경절)’ 축전 발송(중앙통신)

2.28.(금)

대내
- o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수의방역사업 활발히 전개(중앙통신)
- o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혼성림 조성계획 피력(중앙통신)
- o 자강도 임업관리국, 매일 통나무 생산계획 110% 초과 수행(중앙방송)
- o 평양 '주체사상노작전시관', 김정은 위원장 전시장 확장(중앙통신)
- o 개성 대흥사 복원 등 역사유적 복원 및 보수공사 한창(중앙통신)

대남
-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국내방송 인용, 확진자 총 1,766명 및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2020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4.16.~25.) 주최국,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변경(중앙방송)
- o '코로나19' 관련 동향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인용, 세계적으로 확진자 8만 2천여 명 등 보도(중앙방송)
  - 미국·일본·이란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국가 등 세계적인 감염 현황 상세 보도(중앙방송)

2.29.(토)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및 '감사' 전달(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 o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김정은 위원장 지도(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 o 도시경영성, 주요 강·하천 수질검사 지점 증설 및 수질분석·소독사업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o 국경 접경·분계연선지역, '코로나19' 관련 위생방역사업 강화(중앙통신·중앙방송)
- o 함경남도 공장 기업소들,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설비 생산 주력(중앙방송)
- o 평안북도, 봄철 나무심기 준비 주력(중앙통신)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2,337명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대외
- o 특이동향 없음.

이달의 약사

- **02.01.**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결성일(1946년)
- **02.06.** '일당백' 구호 제시일(1963년, 김일성 제시)
- **02.07.**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2016년)
- **02.08.** 「조선 천도교 청우당」 창당일(1946년)
- **02.08.** 「조선인민군」 창건일(1948년)
- **02.08.** 정월대보름(민속명절) *2003년부터 민속명절로 지정
- **02.09.** 평창올림픽 개막식 북한 고위급대표단 파견(2018년)
- **02.10.**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1973년)
- **0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2016년)
- **02.11.**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2006년)
- **02.11.** 北, '개성공단 폐쇄' 발표(2016년)
- **02.12.**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1991년)
- **02.12.**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2013년)
- **02.12.** '북극성-2형' 발사(2017년)
- **0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발표(2007년)
- **02.14.** 김정일 「대원수」 칭호 수여일(2012년)
- **02.16.**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1942년) *2012년 1월 12일 제정, 2일 휴무
- **02.1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12월 13일 채택)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 채택) 발효일
- **02.19**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과업」 발표일(1974년)
- **02.20** '기계절'(1972년 1월 13일 제정)
- **02.23** '금강산 육로 관광' 개시(2003년)
- **02.25**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방침(테제)」 발표일(1964년)
- **02.26** 제3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2001년 2월 26일 ~ 28일, 서울·평양)
- **02.27** 미·북 정상회담(2019년 2월 27일 ~ 28일, 베트남 하노이)